

##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

고린도후서 1장 21~22절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 곧 성자에 대하여 배웠어요. 특히 예수님의 사역, 즉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이유를 통해 예수님을 배웠죠. 첫째로? 참 하나님이지기에, 둘째로?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흠 없는 속죄물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요, 잘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네요. 여러분 공부하듯이, 배워오면 복습하고 또 복습하는 습성을 설교시간에도 적용하세요. 그러면 더욱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성부는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자존자, 아버지이시라고요. 오늘은 성령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해요.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왔고, 유치원 때부터 두 분에 대해선 빠삭하게 알아요. 그러나 성령님? 하면 “성령님? 누군지는 알겠는데 뭐하시는 분이시? 어떤 분이시?” 하는 친구들도 많고 어른들도 많아요. 그러나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분은 성령님이세요. 세계가 시작할 때까지는 성부께서 성자의 사역, 즉 십자가 지기까지의 과정은 성자가,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분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하여 알아보겠어요.

첫째로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엥? 전도사님! 아니 예수님 승천 후 지금까지만 계셨다면서요?! 전도사님 순 뽕쟁이!” 라고 말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 말이 아니고, 성령님께서서는 창조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요. 창조의 순간에 계셨죠, 민수기 11장 25절에도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칠십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여기서 영이 바로 성령님을 뜻해요. 모세와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에게도 임하셨데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계실 때도 함께 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요 예수님 승천 후 마저도 우리와 함께하세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속에 있다니까요? 근데 친구들이 헛갈려 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 “아니 그럼 구약엔 하나님만, 신약 처음엔 예수님만, 강림 후엔 성령님만 있으신건가?” 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자연을 통해 본인을 드러내시고요, 예수님께선 여전히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분은 같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모두 일하십니다.

예화1) 골프 선수 중 풀 에이징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993년 PGA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했데요. 수상 소감 후 트로피를 높이 들어 올렸는데 오른쪽 어깨가 찢어질 듯 아팠어요. 결국 조직검사를 받게 되었고 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타 골퍼에서 암 환자가 되어버린 그는 겁이 나고 두려움에 떨게 되였는데요. 완치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기에 더욱 더 그 고통이 힘들게 했어요. 하지만 그는 절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느꼈고 함께 하심을 느꼈대요. 고백하기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성령님께서 말씀해주시지도 않았고, 암이 다 나을 것이라고 알려주신 적도 없지만, 다만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실 것을 느꼈습니다. 진단 받은지 2년 만에 암세포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요. 이렇게 성령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세요.

“아니, 전도사님! 함께하시는거 뭐가 중요하데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이 말인즉슨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배우고 듣게 될 설교나 교훈, 지식 등은 다 성령 없이는 설명이 불가하고 알 수도 없어요. 이를 믿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증인이 되세요. 오늘 본문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으니” 여기서 인치다라는 말은 어떠한 계약의 효력을 보장시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성령님께서 보증하신데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마음 속에 있는 친구는 예수님의 구원을 확실히 받은 거예요. 또한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라고 하였고, 7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계실 때 그 분의 사역과 구원하심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신 지역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이 제한적인 영역에서만 알려졌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 복음을 다양한 민족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제자들을 이끄셨고 바울을 이끄셨어요. 그리고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앞으로 전해야 할 사람들이예요. 또한 4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특히 에베소서 4장은 성령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라면 따라야 하는 행위들을 알려주는 데요. 도둑질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욕하지 말라는 건데 이는 다음번에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해요. 근데 “뭐 예수님의 십자가가 계약서도 아니고.. 인치한다는 표현을 쓰나요? 전도사님?”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성령이 마음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신하고 그 행위가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도둑질하고 거짓말 하고 입으로 욕하면 그것은 성령님이 속에서 근심하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얼른 기도하시고 회개하도록 노력해야 되어요. 성령님을 근심시킨다면 계약서가 파기될 위험에 처해지니까요.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도 보혜사 성령님이시랍니다. “아니 가뜩이나 성령님도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 보혜사는 대체 뭔데요!” 보혜사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로써, 우리의 직업관에서 살펴보면 선생님, 의사선생님, 변호사님 등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예요. 이 개념은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의 지혜로 이 성경책이 작성이 되었어요. 성령님의 지혜로 쓰여진 이 책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자 진리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판사이신 재판에 서야해요. 거기서 검사인 마귀들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야한다고 해요. 그러나 변호인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저들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보내면 안됩니다” 하세요. 그리고 증인이신 성령님께서도 그것을 보증해주세요. 위에서 잠시 바울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성령님의 지혜로 전하게 되는 거랍니다. 전도사인 저도 항상 설교를 작성하기 전이나 전하기 전에 항상 보혜사 성령님의 지혜를 저에게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성령님이 보혜사이신 것을 왜 알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으신거 믿죠? 부활하신

것도 믿죠? 그것도 모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셔서 그러는거예요. 그리고 믿으라고 가르치셨고 또 그런 마음을 들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여친 남친 선생님 엄마아빠 사랑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자동적으로 주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를 가르치세요. 이렇게요. 여러분 이렇게 그 분의 지혜로 성경까지도 적게 해주시고, 극히 제한적인 영역에서 복음을 알았던 사람들을 통해 이젠 전 세계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신 분이신데 여러분의 작은 고민 하나 모르실까요? 혹은 못 이루어주실 분이신가요? 아니죠? 성령님께서도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 당장 걱정하는 모든 것을 아세요. 만약 ‘내가 저 이성 친구를 좋아하는데 고백할까? 말까?’ 이런 질문마저도 성령님은 이미 아시고 계획하신 바가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 성령님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기도예요 기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오늘부터 알았으면 그 성령님을 앞으로 기도로 무조건 구하셔야 해요. 예수를 믿는다 해놓고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릇된 믿음이랍니다. 그 성령을 찾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하여 배웠어요. 첫째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분, 둘째로? 구원의 증인이 되신 분, 마지막으로 변호사, 의사선생님, 선생님이신 보혜사 성령님이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엔 성령님이 계세요. 이미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 친구들은 확신하잖아요. 믿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되어요. 사탄은 항상 우리를 괴롭혀서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마음 속에서 성령님이 활동하시지 못하게 하려고 이를 갈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보혜사 성령님을 더욱더 기도로 찾아야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질 못해요. 오늘 배운 것처럼 증인되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 지혜를 달라고, 작은 고민마저도 무조건 성령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간다는 다짐과 기도를 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령님의 지혜로 성령님이 누구신지 배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언제나 영원히 마음 속에서 함께 하심이요, 구원의 증인이자 복음 전파의 명령자이시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 성령님이십니다. 이를 믿고 기도로 구하는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만약 고민이 있거나 선택의 기로에 놓인 친구들이 있다면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이 택하신 길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